

영어의 기생공백 구문연구

김 한 규

- | | |
|-----------------|------------|
| I. 서론 | 1. 무한계의존성 |
| II. 기생공백의 발생현상 | 2. 반성분통어조건 |
| 1. 기생공백 구문의 구조 | 3. 영하위인접조건 |
| 2. 기생공백 구문의 종류 | IV. 결론 |
| III. 기생공백의 제약조건 | |

I. 서론

최근의 통사론 연구가 변형의 힘을 약화시켜 원리체계로 옮겨가면서 공범주 (Empty Category ; EC)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공범주란 NP나 Wh구가 이동되어 나간 자리로서 그 자리에 흔적 (trace ; t)을 남기는데 이를 공범주라 한다. 남겨진 자리가 NP 흔적이거나 Wh 흔적이거나의 구별이 통사구조 설명에 필요하게 되며, 이런 구별을 해주는 데 대한 보강 구문으로서의 기생공백 (parasitic gap ; pg) 현상은 Ross(1967)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Taraldsen (1979 = 1981)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고 연구된 이래 언어학적 문장구조에 대한 식견력을 높여줌으로써, Engdahl(1981 = 1983)의 기생공백현상과 문법이론과의 관련성을 처음 시도한 창시적이고도 상세한 연구에 힘입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오고 있다.

기생공백이란 동일 문장내에서 다른 또 하나의 공백 (진공백 ; real gap)이 존재함으로써 그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공백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의 Wh구절이 마치 두개의 공범주자리에서 동시에 추출되어 이동된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구문이다. 이런 구문은 Engdahl(1983:9)이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면서 얻어낸 기생공백 발생의 수용성 체제표(accessibility hierarchy)를 내보이면서 입증하듯이 양원합리 (Bijection Principle)를 어긋나 완전히 비문법적인 문장을 제외하고는 준문법적 (semigrammatical)인 것으로 여겨진다.

두 공범주 중에서 하나는 섬 (island) 안에 있게 되어 섬제약조건과 하위인접조건 (Subjacency)을 위반하므로 Taraldsen, Engdahl, Chomsky(1982) 등은 기생공백은 α 이동 (Move- α)에 의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저생성되고 (base generated) S 구조에서 진공백이 기생공백을 인허한다 (license)는 소위 기술적 일반성 (descriptive generalization)의 관점에

서 기생 공백을 논한 무한계의존성 (Unbound Dependency)¹⁾ 조건과 공범주의 위상 (status) 은 도출과 표시단계에서 공범주의 역할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결정된다는 공범주의 기능적 관점에서 본 반성분통어조건 (Anti-c-command)으로 분석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Chomsky(1986)는 기생 공백이 기저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생 공백이 자신이 속해 있는 하위절의 첫자리로 이동하여 공운용소 (empty operator)가 된다는 가설하에, 장벽 (barrier)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반성분통어조건을 수정하여 영하위인접조건 (O-Subjacency)에 의해 기생 공백을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기생 공백에서 나타나는 여러 제약과 인허조건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기생 공백이 UG의 한 원리로서 위상을 지닐 수 있는가의 여부에 모아 보겠다.

II. 기생공백의 발생현상

1. 기생공백구문의 구조

Engdahl(1983)은 기생 공백은 문장 내에서 충전어와 공백간의 의존성 (filler-gap dependency)이 존재하여 충전어에 의해 기생 공백이 통제되며 (controlled), 동시에 해석을 받는다고 했다. 이것을 Chomsky(1982:40)는 대략 아래의 구조로 표현한다.

- (1) α t e (순서무관)
 | | |
 충전어 진공백 기생공백

그리고 (1)의 인허조건은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cf. Engdahl 1983:12,22)

기생 공백 e 는 공백 t 에 의해 아래 조건하에서 인허된다.

- a. t 와 그의 보충어와의 관계에는 무한계 의존성이 있다.
- b. t 는 e 를 성분통어 하지 않는다.

(A parasitic gap e is licensed by a gap t if

- a. the relation of t to its filler is an unbounded dependency
- b. t does not c-command e)

다음은 Engdahl(1983:5)에서 보여준 기생 공백구문들이다. - p 로 표시된 곳이 기생 공백이다.

- (2) Which articles did John file - without reading -
- (3) This is the kind of food you must cook - before you eat - p

1) 자의적인 영역을 넘어 유지되는 의존성을 말하며 이것을 기술하는데는 변항을 이용해야 한다. 즉 유/무격 흔적들의 구분이 중요하다.

(4) Which girl did you send a picture of – to – ?

(5) Which boy did Mary's talking to –_p bother – most ?

구문 (2), (3)에서는 기생공백이 진공백의 뒤에 나타나고 (4)는 양 쪽의 어느 한 쪽에도 기생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구문이며, (5)에서는 기생공백이 진공백의 앞에 나타나고 있다.

2. 기생공백구문의 종류

2.1. 부가기생공백구분 (adjunct parasitic gap)

(6) What did you file *t* [before reading *e*]

(7) This is the kind of food you must cook *t* [before eating *e*]

이런 구문들은 주어자리가 아니고 목적어자리의 Wh 흔적 (또는 다른 운용소에 결속된 흔적)에 의해 기생공백이 인허된다.

2.2. 주이기생공백구분 (subject parasitic gap)

(8) He is a man that [anyone who talks to *e*] usually likes *t*

(9) Who would [a picture of *e*] surprise *t*

이런 구문은 일반적으로 주절 또는 주어 자리에 기생공백이 나타난다. 주이기생공백은 무위 이동가설 (Vacuous Movement Hypothesis; VHM)²⁾ 과 연관이 있는 듯 하다. 이외에도 *too/enough* …… *to* … 의 복합형용사구조 (complex adjectival construction), *tough* 이동구문, 그리고 중량명사구전이 (Heavy NP Shift) 구문 등에서도 나타나나, 위의 두 구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Engdahl(1983:15)은 구조적 근거와 상대적 의무성이란 관점에서 부가기생공백구분을 일명 수의기생공백 (Optional pg)이라 하고, 주이기생공백구분은 비교적 의무적으로 인식된다는 이유에서 의무기생공백 (Obligatory pg)이라 칭하며 이 두 형태의 구분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10) ‘수의’ 기생공백 (‘Optional’ pg)

(i) 진공백의 뒤에 나타난다.

(ii) (비시제)부사절과 보문절에 주로 나타난다.

(iii) 공지표되는 무강세 인칭대명사 (=복귀대명사; resumptive pronoun³⁾)와 거의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

(11) ‘의무’ 기생공백 (‘Obligatory’ pg)

(i) 진공백의 앞에 나타난다.

2) Move- α 에서 어순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이동을 말하며 “S 구조에서 무위 이동은 의무적이 아니다.” 라고 규정한다.(Chomsky 1986 b:50)

3) Wh 흔적의 자리에 나타나는 대명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지표를 받거나 결속관계가 성립된다.

- (ii) 동명사구문과 명사보문절에 주로 나타난다.
- (ii) 흔히 복귀대명사와 대치되지 않는다.

Ⅲ. 기생공백의 제약조건

Taraldsen 과 Engdahl 이 기생공백이라 명명한 이런 구문들에 나타나는 제약조건들을 차례대로 살펴 보겠다.

1. 무한계 의존성 (Unbounded Dependency)

Engdahl 은 Wh 이동에서만 기생공백이 허용되고, NP 이동 구문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사실로 보아 국부 대 비국부의존성 (local vs non-local dependency)에 기생공백이 민감하게 따르고 있으므로 Wh/NP 이동을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견해⁴⁾에 찬성하여 한계 (bounded)와 무한계 (unbounded)의 과정을 체계있게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무격 흔적의 구분도 중요하다면서 EC의 기능적 관계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데는 기생공백을 성분통어 하지 않는 진공백이 꼭 존재해야 하며 기생공백이 존재하므로 대명사에서 일어나는 ‘약교차’ (‘Weak Cross-Over’)⁵⁾ 위반 현상도 해제된다고 말한다.

그러하여 기생공백의 인허조건 (1)이 제안되고 그런 공백의 부가구문은

(12) [_{vp} [_{vp} VX] [_{AdvP}]]

로 보아야 성분통어⁶⁾ 관계가 안일어 난다고 본다. 즉 VP와 AdvP는 동위교점이다.

또한 기생공백의 영역은 흔히 추출이 불가능한 섬이며, 기생공백은 어떤 이동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Engdahl 의 논증에 따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공백이란 문장내의 어딘가에 있는 어휘에 의해 반드시 통제되는 빈 교점이다. 그러므로 기생공백도 충전어 - 공백의 의존성이 존재하여 그 충전어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이 대명사 삭제 규칙이 적용되어 나타난 공백은 기생공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3) Q: What happened to John?

A: Someone hit *-/him

4) Riemsdijk-William (1980)

5) 변항은 자신이 성분통어할 수 없는 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즉 공지표될 수 없다.

*[Who_i does [_{IP} his_i mother love t_i]]

6) α 옆의 구조에서 A를 관할하는 최초의 가지교점 α 가 역시 B도 관할하고 있을 때 A는 B를 성분통어한다. 그 반대인 B도 역시 A를 성분통어 한다.

(14) Q : 철수 왜 그래 ?

A : 누가 (그를) 때렸어.

우탈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은 (14) 에서와 같이 대명사를 생략해도 가능하나, 영어와 같은 인 구어에서는 대명사 자리에 공백이 오면 대부분 비문이 된다. 이는 하위범주화조건을 어기기 때 문이다. 아래 예문들도 같은 이유이다.

(15) John filed a bunch of articles without reading *-/them

(16) Mary's talking to *-/him bothered John a lot

(15) 에선 *a bunch of articles*, (16) 에선 *John* 등의 선행사가 있더라도 둘 다 공백이 나오 면 하위범주화 조건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 기생공백은 다른 공백이 존재하면서 충진어 - 공백 의존성이 성립되고, 충진어 (filler) 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 (17) a. Here is the paper that John read – before filing – *p*
- b. ?Here is the paper that John read his mail before filing – *p*
- c. Here is the paper that John read – before filing his mail

- (18) a. Who did John's taking to – *p* bother – most?
- b. ?Who did John's talking to – *p* bother you most?
- c. Who did John's talking to Mary bother – most?

(17), (18) 의 b 구문들이 진공백 자리에 다른 어휘를 채웠을 때 수용성이 떨어짐은 그 자리가 진공백의 자리임에 틀림없고 이 진공백 없이는 기생공백이 존재하지 못해 의존성이 있다는 증거 이다.

그러나 진공백이 존재하는 다음 구문들을 보자

(19) John_i was killed t_i by a tree falling on *— /him

(20) Mary_i tried t_i to leave without John's hearing *— /her

(21) Mary_i seemed to disapprove of John's talking to *— /her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공백이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이유는 진공백이 모두 NP 흔적들이기 때 문이다. 기생공백이 허락되는 (2) - (5) 의 구문에는 연속순환이동에서 생기는 비국부 (non - local) 즉 비한계의존성이 있고, (19) - (21) 에는 국부 즉 한계의존성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 이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여겨지는 것들이 수용성이 반대되는 예문을 보자.

(22) Which articles did you say [_s – got filed by John [_{ADVP} without him reading * _p / them?]] .

(23) Which Caesar did Brutus imply [_s – was no good] [_{ADVP} while ostensibly praising * _p?]

(22)는 진공백이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하는 구문이고, (23)은 성분통어하지 못하는 구문이다. 이로 보아 기생공백은 진공백에 의해 성분통어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논증을 하며 Engdahl은 기생공백 구문이 문법의 중심이론으로 확립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학자들의 분석도 살펴며 문법이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Lasnik(1986:179)는 Engdahl의 진공백이란 S구조의 Wh 흔적에 해당됨을 아래의 논증으로 밝히며 기술적 일반성(descriptive generalization)에서 포착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24) 기생공백은 자신을 성분통어하지 않는 S구조에서의 Wh 흔적에 의해 인허된다.

(A pg is licensed by an S-structure Wh-trace that does not c-command it)

다음의 문장은 (2)와 같은 구조에서 *file*의 뒤에 있는 공백의 자리에 어휘를 채워넣은 구문이다.

(25) *? Which book did you file the report without PRO reading *e*

*e*에서 *which book*이 추출되어 나갔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은 Engdahl에서도 살펴본바 있다. 나갔다면 하위인접조건(Subjacency)⁷⁾에도 위반된다. *e*자리가 마음대로 인허되는 공범주의 자리도 아니고 COMP자리의 Wh구절과 공지표되는 공범주는 더욱 아니라는 점을 보면 (2)의 진공백이 기생공백을 인허함이 틀림없다는 Engdahl의 관찰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 이 흔적(진공백)을 좀더 규명하기 위해 (25)와 비슷한 구조를 또 보자

(26) a. * Who filed which report without reading *e*

b. [which report_{*i*}, who_{*i*}] [*t_i*[filed *t_j*] [without reading *e_j*]]

(26 a)의 S구조에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흔적 *t*가 없다는 점이 (25)와 다름없다. 그러나 (26 b)의 LF구조에는 인허하는 흔적 *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문이다. 이점으로 미루어 *t*는 LF구조의 *t*가 아니라 S구조의 흔적임에 틀림없다.

다음은 동명사의 목적어 자리에 기생공백이 나타나는 부사부가문장을 살펴보자

(27) *The report was filed *e* without PRO reading *e*

이런 동명사구문이나 부정사구문은 동명사 또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PRO)가 모문의 주어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된다. 그래서 여기의 PRO는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좋다. 그러나 기생공백을 인허해야 되는 *filed*뒤의 *e*는 의미역을 받을 수 없게 되어 *the report*가 의미역자리로 떠난 후에 남은 흔적이기에 지금까지 보아왔던 Wh 흔적이 아니라, NP 흔적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NP 흔적인 앞의 *e*가 뒤의 *e*를 인허해 주지 못하고 비문으로 만드는 이유이다. 이를 보아 기생공백을 인허하는 흔적은 NP 흔적이 아니라 Wh 흔

7) 이동 규칙은 한꺼번에 둘 이상의 장벽을 건너서 적용될 수 없다.

적이다. 그래서 Engdahl의 t 는 ‘S구조의 Wh 흔적’이다. 아래 구문들이 어느곳에도 Wh 흔적이 없고, 비문인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 (28) a. *The teacher was fired t without PRO understanding e
- b. *The teacher resigned after PRO understanding e
- c. *The teacher was fired t after he understood e

다음은 Wh 흔적도 있으나 비문이 되는 문장을 보자

- (29) *Who t resigned before we could fire e

위의 구문은 Wh 흔적인 t 가 있어 기생공백을 인허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역시 비문이다. 이유는 t 가 e 를 성분통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Engdahl이 관찰한 성분통어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옳다.

지금까지 t 는 S구조의 Wh 흔적임을 살펴왔다. 이는 이미 Taraldsen이나 Chomsky가 밝힌 t 가 변항(variable)이라는 점과 다를 바 없다. 다만 Lasnik은 기술적인 속성에서 논한 것이고 후자들은 여기에 공범주의 기능을 더하여 변항이라 말한 차이로 볼 수 있다.

2. 반성분통어조건(Anti-c-command)

Koopman-Sportiche (1982:148)는 공범주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정체를 밝히면서 e 라 불리우는 또 한 종류의 공범주를 제안하면서 기능결정법을 도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어떤 공범주가 나타날 때 그 자질은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에 의해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공범주가 COMP 자리에 있는 운용소(operator)에 의해 비논항⁸⁾ 국부결속⁹⁾ 되면 R-expression으로서 반드시 격을 지니는 변항(variable)이 되고, 비논항자리에 있어 격을 지니지 못하게 되면 NP 흔적이 되며, 또 다른 환경에서는 특정선행사를 지니거나 일반인을 지칭할 수도 있는 PRO로 그 공범주의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능상으로 결정되는 변항, NP 흔적, 그리고 PRO는 서로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 관계를 이루게 된다.

Chomsky (1982a:35)는 Koopman-Sportiche의 공범주의 기능 결정법을 수용·발전시켜 절차호제법(algorithm)을 제시했고 이것을 약간 수정하여 Lasnik(1986:6)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호제법을 제시한다.

8) 논항(term) : S 또는 NP안의 NP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어, 목적어 등을 지칭한다.

9) 국부결속(local binding) : X가 Y를 결속하는데 X와 Y사이에 X에게 결속되면서 동시에 Y를 결속하는 어떤 요소 Z가 없을 때 X는 Y를 국부결속한다.

- (i) 공범주는 변항이다. (An EC is a variable if it is in an A-position and is locally A-bound by an operator)
- (ii) 논항자리에 있으면서도 변항이 아닌 공범주는 조응어다. (An EC in an A-position that is not a variable is an anaphor)
- (iii) [논항자리에 있으면서도] 변항이 아닌 공범주가 자유롭거나 또는 독자적인 의미역을 지닌 선행사에 의해 논항국부결속되면 그 공범주는 대명사류이다.
(An EC [in an A-position] that is not a variable is a pronominal if it is free or locally A-bound by an antecedent with an independent θ -role)

위의 절차호제법은 공범주에 적용시킬 때는 번호 순서대로 적용시켜야 한다. 이것에서 변항은 $[-a, -p]$ 의 자질을 지니며 지배범주내에서 자유(free)로와 연산자와 비논항결속(A-binding)된다. NP 흔적인 조응어는 $[+a, -P]$ 의 자질을 지니고 지배범주내에서 선행사와 결속된다. 그리고 대명사류는 $[-a, +P]$ 의 자질을 지니고 자유롭다는 말로 풀어 말할 수 있다. 또 이 법은 변형도출과정의 끝난후 즉 S구조에서 적용된다. 만약 D구조에 적용되면 흔적은 D구조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흔적을 다룰 길이 없게 된다.

이제 위의 절차호제법을 기생공백구문에 적용해보자.

(31) Who did you give a picture of e to e

(31)의 D구조는 (32a) 아니면 (32b)다.

- (32) a. you INFL give a picture of e to who
b. you INFL give a picture of who to e

우선 (32a)를 D구조로 보고 이동규칙을 적용하여 나온 S구조는 아래 (33)이다.

(33) Who did you give a picture of e to t

여기서 t 는 *who*의 흔적이므로 당연히 공지표된다. 그럼 e 의 지표는 어떤가? (who, t) _{i} 와 e_j 의 지표가 다르다면 (30 iii)에 의해 e_j 는 PRO¹⁰⁾가 된다. 그런데 e_j 는 전치사에 의해 지배받으므로 지배받는 PRO가 되어 결속이론¹¹⁾이 적용되면 S구조에서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바꾸어 (32b)를 D구조로 삼고 e 의 정체를 밝혀도 역시 e 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결속되지 못하여 역시 비문이 된다.

10) 선행사의 통제를 받을 때는 $[+a]$, 일관인은 지칭하는 경우는 $[+P]$ 의 자질을 공유하면서 지배를 받지 않으므로 격을 받지 않지만 선행사에는 격과 의미역도 배당된다. 선행사에 논항결속된다.

11) (A) 조응사는 그 지배범주안에서 결속된다: 상호대명사, 제귀대명사, NP- t , PRO

(B) 대명어는 그 지배범주안에서 자유롭다: 조응사를 제외한 he/she, PRO 등

(C) 지시표현은 자유롭다: 고유명사, 변항

그러면 이제는 $(who, t)_i$ 와 e_i 의 지표가 공지표가 될 경우를 보자. (30i)에 의해 e_i 는 *who* 에 의해서 비논항국부결속(locally \bar{A} -bound)되는 변항 (variable)¹²⁾ 임이 판명된다. 이 e_i 는 논항자유가 되어 결속이론 C 를 만족시킨다.

(34) Who_i [did you give a picture of e_i to e_i]

여기에서 두개의 e_i 가 모두 하나의 운용소(operator) *who*에 비논항국부결속되는 변항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나 Koopman-Sportiche(1982:146)의 양함원리(Bijection Principle)를 보면 :

(35) 하나의 운용소는 단하나의 변항만을 결속해야 한다. (Each operator must bind a distinct variable)

(34)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 단 BP가 논리형태에 적용되어 위반하면 ‘약’ 위반으로 여겨 (34)같은 약위반의 해석은 ‘주변적’(marginal)이라 규정한다.

이상에서 볼 때 기생공백구문은 결속이론, 투사이론(Projection Principle)¹³⁾, 의미역기준(θ -criterion)¹⁴⁾, 그리고 α 이동등을 따라 행동하나, 단하나 논리형태에서 양함원리만을 따르지 않고 있어 그 해석의 가능성을 주변적이 되게 한다. 이제는 기생공백이란 논항자유(A-free)인 변항이라는 정의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은 Chomsky(1982a)가 공범주의 기능면에서 밝힌 기생공백의 공식을 보자.

Chomsky(1982a:40)에서 Engdahl이 말한 진공백의 성질을 더 연구하여 인허되는 기생공백은 (1)의 무한계의존성보다는 위에서 논한바 있는 기존 문법원리에서 기생공백의 속성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고 기생공백은 비논항결속(A-bound) 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Taraldsen(1979)의 견해를 받아들여 공식 (1)을 바꾼다.

Taraldsen의 공식은

(36) 기생공백은 자신을 성분통어하지 않는 변항에 의해 인허된다. (A parasitic gap is licensed by a variable that does not c-command it)

(36)이 (1)보다 우월한 점은 t 가 변항이란 점을 밝혀 기생공백현상에 특별 조건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에서 논한 대로 기존원리에서 기생공백의 속성을 도출 가능케하고 있는 점이다.

Chomsky(1982a:40)는 Engdahl의 무한계의존성이란 매우 불분명하고 전혀 이론적 뒷받침

12) Wh 이동으로 생긴 흔적 t 가 논리적 양화사 구실을 하는 운용소 Wh 구절에 결속될 때 그 t 를 변항이라고 하며 변항은 지시적 표현(R-expression)이다.

13) 어휘적 특성은 모든 통사구조에 표시되어야 한다.

14) 모든 논항에는 의미역이 반드시 할당되어야 하지만 하나이상 할당되어서는 안된다.

없는 조건으로서 이미 무한계의존성을 다룰 수 있는 연속순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한계의존성이란 기본 속성상 $M-\alpha$ 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이유로써 첫째, 한계이론은 LF이동이 아니라 통사이동이론의 일부이다. 통사이론에는 결속이론이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NP이동과 Wh이동을 하나의 $M-\alpha$ 로 보면 한계나 무한계나 따지지 않더라도 결속과 의미역이론의 중심개념인 비논항결속과 논항결속이 그대로 기생공백이론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Engdahl은 기생공백이 추출불능한 자리에 흔히 나타나는 데도 섬제약조건이 왜 기생공백에는 적용안되는지 의아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Chomsky(1982a:52)는 이동이 일어나는 복귀대명사와는 달리 기생공백은 기저생성되기에 $M-\alpha$ 가 없고 그래서 결속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섬제약조건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기생공백은 기저생성되므로 한계·무한계 개념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고 결속이론으로 다루는 길이 단하나 적절한 방법이라 논한다.

또한 Chomsky(1982a:64)는 Engdahl의 공식 (1)에는 e 는 지배되는 논항자리(governed A-position)에 있고, 의미역자리(θ -position)의 요소가 핵이되는 연쇄(chain)¹⁵⁾에서 e 가 핵이 되며 해당되는 의미역(θ -role)이 할당된다. 그래서 α 는 비논항(\bar{A} -position)에 있고 t 는 e 를 성분통어 못한다는 사실을 공범주의 기능을 살핀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α 가 비논항자리에 있어야만 t 가 e 를 인허한다라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사실은 t 가 변형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α 는 t 나 e 의 어느쪽으로 부터도 의미역을 부여받아서 안된다. 즉 α 는 두 연쇄(α, t)와 (α, e)의 어느 한쪽의 핵이 된다면 연쇄의 핵에는 의미역이 할당되어야한다는 θ 기준에 어긋나서 e 가 마치 PRO로 잘못 판명이 된다는 점 등을 간파하고 기생공백이란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하지 않거나 자신이 기생공백에 의해 성분통어 되지도 않는 비논항국부결속된(a locally \bar{A} -bound EC) 진공백에 의해 인허된다며 자신의 기생공백조건을 아래와 같이 내놓는다. (Chomsky 1982a:66)

(37) (A) ... α ... t ... e ...

(B)(i) α 는 t 와 e 를 성분통어한다. (α c-commands t and e)

(ii) t 와 e 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성분통어하지 않는다. (t does not c-command e or conversely)

(iii) α 는 두 연쇄(α, t)와 (α, e)의 핵이 아니다. (α does not head the chains (α, t) and (α,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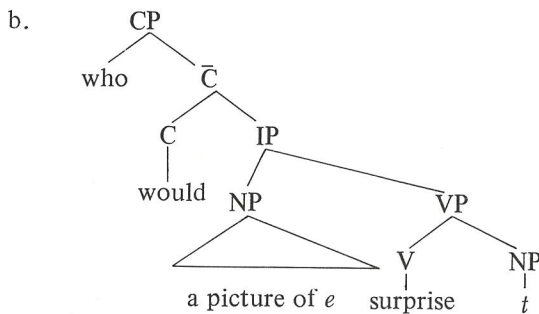
(iv) e 는 지배되며 (그러나 PRO는 아니다) 의미역을 지닌 연쇄의 핵이 된다. (e is governed(\neq PRO) and heads a chain with a θ -role)

15) 동일한 지표를 가진 흔적과 이동된 요소는 연쇄를 이룬다. 연쇄의 핵이 되는 이동된 요소는 그 흔적으로부터 의미역을 전달받는다.

α 가 COMP 자리에 있으면 어떤 연쇄의 핵이 될 수가 없다. 고로 α 는 COMP 자리에 있어야 (iii)이 만족된다. α 가 논항자리에 있다면, 연쇄의 핵은 논항자리에 있는 요소가 되어야 하므로 이 α 가 두 연쇄 (α, t)와 (α, e)의 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e 는 PRO가 되므로 (iii)이나 (iv)가 항상 위배된다. 어떤 요소가 핵이 되는 연쇄가 있는데 그 요소가 논항자리에 있으면 항상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연쇄의 한 요소만이 의미역자리에 있어서 그 연쇄가 격을 지녔거나, 또는 $\alpha = \text{PRO}$ 라면 그 연쇄는 의미역을 지닌다. 한마디로 α 는 COMP 자리에 있고, e 는 의미역자리 즉 논항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위의 조건들이 문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나를 앞에 나온 (9)에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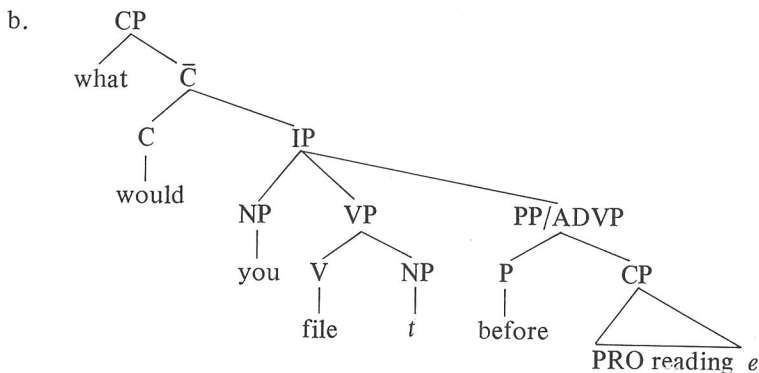
(9) a. Who would a picture of e surprise t



위에서 α 인 *who*는 COMP 자리에서 e 와 t 를 모두 성분통어하며 두 연쇄의 핵도 못된다. e 도 지배되는 자리에 있고, α 와의 연쇄에서 핵이 된다. 그리고 (9b)에서 볼 때 t 와 e 는 서로 성분통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고로 (9a)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어 정문임이 판명된다.

다음은 t 와 e 의 자리를 바꾼 예문 (6)을 (38)에 다시 적어 살펴 보자.

(38) a. What did you file t before reading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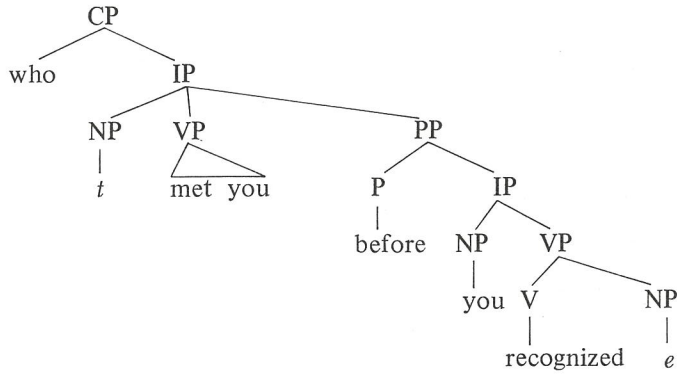


(38)도 (9)에서 논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단지 t 와 e 의 순서만 바뀌었을 따름이다. 여기서도 t 와 e 는 서로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다음은 주어기생구문을 살펴보자.

(39) a. *Who [t met you [before you recognized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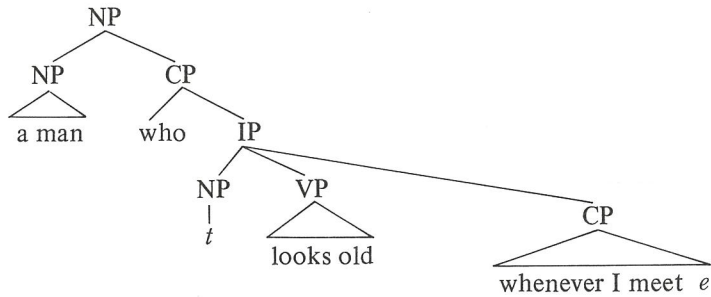
b.



여기서는 *t*가 *e*를 성분통어하지만 *e*가 *t*를 성분통어를 하지 못해 (37Bii)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또 α 인 *who*도 *t*와 *e*를 모두 성분통어하므로 (37Bi)도 만족되고 (37Biv)도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비문이 되는 이유는 기생공백의 속성중의 하나는 주어자리가 아니고 목적어자리의 Wh 흔적에 의해 인허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Chomsky는 말하고 Lasnik는 Engdahl이 말한 *t*가 *e*를 성분통어 하지 못한다는 말이 옳바르다고 한다. Chomsky(1986)에서는 반성분통어쪽 즉 Lasnik의 입장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아래 예문들을 또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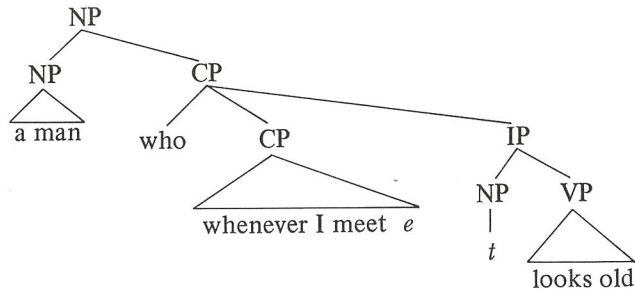
(40) a. *A man who [t looks old [whenever I meet e]]

b.



(41) a. A man who [whenever I meet e] [t looks old]

b.



위의 예문들은 관계절구문에서 주어기생공백이 일어나는 (39)와 같은 구조이다. (40a)는 (39)와 같은 이유에서 비문이 됨을 알 수 있으나 (41b)는 그렇지 않고 정문이 된다. 이는 여러 구문에서도 나타나는 데 한결같이 주어자리의 Wh 흔적에 의해 인허되는 기생공백은 주어가 기생공백을 통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성분통어를 t 가 e 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옳으며 또한 부사절의 이동이 쉬워 (41b)는 자리를 옮겨 성분통어를 벗어나는 듯하다.

다음은 (37Biii)을 어기어 비문이 되는 예문들을 살펴보자.

- (42) *John was killed t by a tree falling on e
- (43) *John seems [t to have met e]
- (44) *Mary tried t to leave without John's hearing e

(42-44)가 비문인 것은 t 에 있던 *John*이나 *Mary*가 격을 찾아 논항자리로 이동했고 옮겨진 주어자리에서 의미역을 할당받게 된다. 그래서 t 는 NP 흔적이다. α 인 *John*과 t 가 이루는 연쇄 (α, t)는 논항결속되고, 마찬가지로 (α, e)도 논항결속이 되어 변항은 논항결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강교차제약 (Strong Crossover)¹⁶⁾을 어기고 α 가 두 연쇄의 핵이 되어 비문이 된다. 그러나 다음 (45)에서는

(45) John offered t by not recognizing e immediately, hi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
 α = [his favorite uncle from Cleveland]인데 이 구문의 문제점도 (37Biii)에서 나오는데 중량명사구 이전 (Heavy NP Shift)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이동되어 비논항의 자리에 부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두 연쇄 모두가 비논항결속되어 강교차제약을 피하고 정문이 된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e 가 지배받는 PRO가 되면 비문이 되는 (37Biv)에 대한 구문들을 보자.

- (46) He is a man whom everyone who meets e admires t
- (47) Who did you interest in e surprise t

e 는 이동불가피한 공범주의 대명사류로 기저생성되어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속이론에서 오는 첨제약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고 또 e 는 기능상 변항이란 사실도 밝혔다. 이로보아 e 는 지배받은 자리에 있어서 지배받은 변항이지 PRO가 아니다. 고로 위의 예문들이 정문임은 자명하다.

또 한편 (37Biv)는 e 가 의미역을 지닌 연쇄의 핵이라고 했는데 아래 구문들을 살펴보면 :

16) 결속원리 C가 변항에 적용될 때를 말한다. 아래에서 t_i 가 he_i 에 논항결속되어 비문이다.

Who_i does he_i love t_i ?

다시 말하면 대명사는 그 자신을 넘어서 이동한 Wh 구절하고는 결속되지 않는다.

(48) *Someone who John expected *t* would be successful though believing *e* is incompetent

(49) Someone who John expected *t* to be successful though believing *e* to be incompetent

(48)은 공범주원리(ECP)¹⁷⁾를 위반하는 구문이다. *e*는 지배자가 없다. 그렇다면 *e*는 PRO이다. 이 *e*의 자리에 적절한 대명사가 나타나면 정문이 된다. 그러나 *t*는 COMP 자리의 *who*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반면 (49)는 (48)는 달리 *e*는 앞의 동사 *believing*에 의해 엄정지배(properly governed)¹⁸⁾된다. 여기의 연쇄(α , *e*)는, 연쇄의 핵은 항시 논항자리의 요소라야 하기 때문에, 의미역을 지닌 연쇄가 되어 (37Biv)를 만족시켜준다. 여기서 ECP는 주어자리에 기생공백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단하나 가능한 주어기생공백은 격, 즉 의미역을 받는 구문에서 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건들은 꽤 복잡하고 독자적인 원리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하고 또 이런 조건들로 해결안되는 구문들도 나타나고 있다.

3. 영하위인접조건(O-Subjacency)

Contreras(1984)는 통사이동에서 생긴 진공백이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하지 않는다는 반성분통어조건이 앞의 (2)와 같은 예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 Which articles did John file *t* without reading *e* ?

(2)를 Engdahl은 *t*가 *e*를 성분통어 않는다고 보았고 Contreras는 다른 논증을 들어 *t*가 *e*를 성분통어한다고 보아 반성분통어조건으로 해결 못한다고 보나 필자는 두 사람사이의 구조분석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한다. Engdahl은 PP가 IP에 부착된다 본 것이다. Contreras(1984:699)는 논증은 달리하지만 묵시적으로 구조의 차이를 인정하고 어떤 구조건 부가구절에는 *e*를 비논항결속하는 공운용소가 있다고 제안하며 (2)의 구조를 (2)'로 본다.

(2)' [Which articles]_i did John file *t*_i [_{PP} without [_S OP_i [_S PRO reading *e*_i]]]

이렇게 되면 *e*는 변항이고, 공운용소 OP에 의해 비논항결속된다. 그래서 의미역 기준이나 결속이론도 위반하지 않게 된다. 또 이런 구조가 되면 *e*가 *t*에 기생한다는 말 대신 비논항연쇄(OP, *e*)가 역시 비논항연쇄(*which articles*, *t*)에 기생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양함원리가 위반되는 것도 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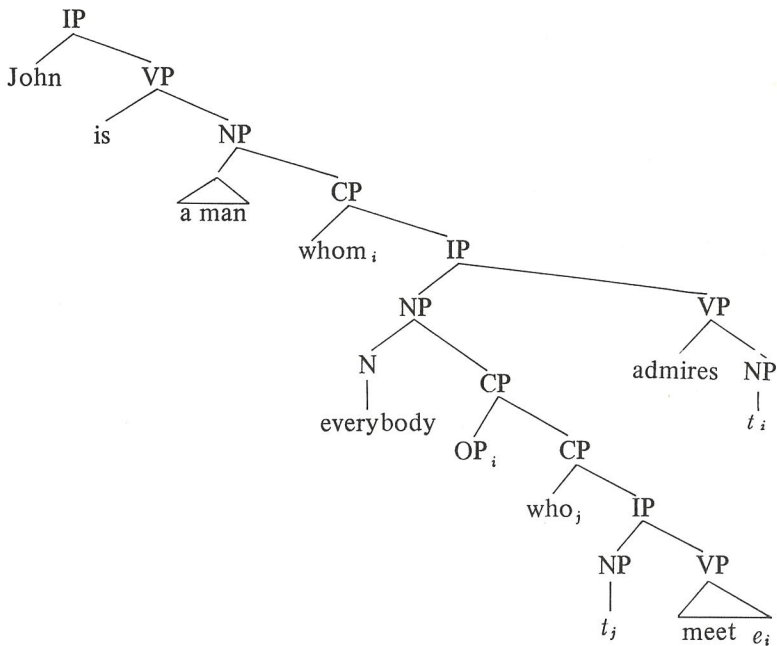
이런 운용소이동이 존재한다는 논증에 대한 보강구문이 아래의 (50)이다

(50) a. Jonn is a man [_S whom_i [_S [_{NP} everybody [_S OP_i who_j [_S *t*_j meets *e*_j]]] admires *t*_i]]]

17) 공범주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 이동에 의해 생긴 흔적이 공범주는 엄정지배된다.

18) N, V, A, P 또는 Wh-*t*에 의해 지배되는 것

(50)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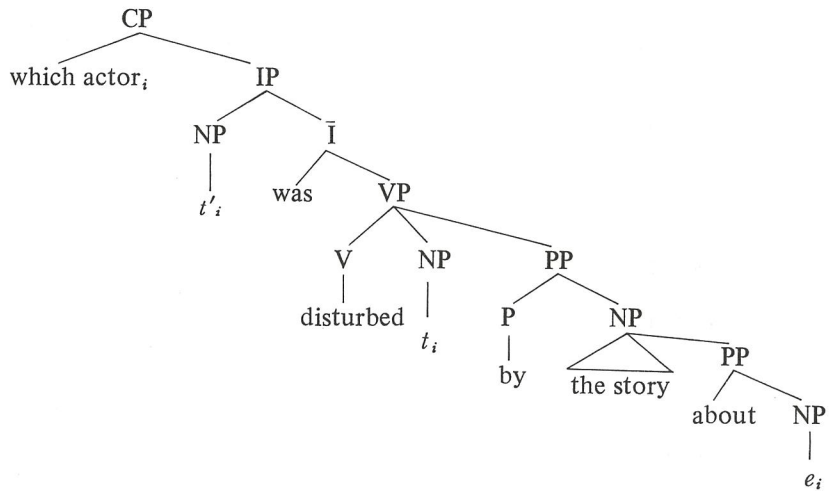


(50)은 물론 반성분통어로도 해결되는 구문이지만 이런 구문에도 역시 공운용소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은 공운용소가 없어 배제되는 구문을 보자.

(51) a. *[Which actor]_i t_i was disturbed by the story about e_i?

b.



위에서 *e*와 *t*가 두개의 의미역을 받는 논항연쇄를 이루게 되어 비문이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공운용소가 나타날 COMP 자리가 없다.

다음은 주어기생문과 목적어기생공백의 비대칭성을 보자.

- (52) a. ?[The books you should read *t*] [before it becomes difficult to talk about *e*]
 b. ?..... before OP_i it becomes e_i
- (53) a. *The books [_S you should read it [before talking about e]_S] becomes difficult
 b. *..... before OP_i talking about e_i becomes difficult

위의 (52a)와 (53a)는 Engdahl도 Chomsky도 반성분통어관계로는 수용성을 설명 못했던 것들이다. e 가 기생생성된다고 보았기에 하위인접조건도 적용불가 했었다. 그러나 (52b)에서는 부가구절에 \bar{S} (=CP)가 나타나 e 를 결속하는 운용소가 올 수 있다. (53b)는 그래도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한다. Chomsky(1986:59)도 주어기생공백에는 무위이동가설(VMH)의 공운용소이동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두 종류의 기생공백은 모두 섬제약을 따르는 것이 전형적이다. 이 따른다는 사실에는 운용소이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생공백은 S구조에서 인허받고 OP 가 LF 이동에 의해 제거되거나 또는 LF 이동 전에 이 OP 는 제거되는 것이라 말한다.

Contreras의 논증을 수용하면서 Chomsky(1986)는 기생공백구문에는 공운용소이동(empty operator movement)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아래의 (54)에도 공운용소인 O 가 존재하는 구조로 본다.

- (54) What did you file *t* [before [O[reading *e*]]]

공운용소론이 함의하는 바는 Chomsky(1982a)는 기생공백이 진공백의 운용소에 국부 결속되어 그 범위내에 들어오는 S구조에서의 변형이 된다는 가정이었으나 여기서는 전의 분석을 버리고 기생공백구문에는 진공백의 연쇄와는 무관한 별개의 연쇄 즉 기생공백과의 연쇄가 존재하여 아래와 같은 연쇄합성이 이루어져서 기생공백이 인허된다는 것이다.

- (55) 연쇄 합성 (Chain Composition)

$\mathcal{C} = (\alpha_1, \dots, \alpha_n)$ 가 진공백의 연쇄이고 $\mathcal{C}' = (\beta_1, \dots, \beta_m)$ 는 기생공백의 연쇄라면 “합성된 연쇄” $(\mathcal{C}, \mathcal{C}') = (\alpha_1, \dots, \alpha_n, \beta_1, \dots, \beta_m)$ 은 기생공백구문의 연쇄가 되어 여기에서 그 해석이 나온다 If $\mathcal{C} = (\alpha_1, \dots, \alpha_n)$ is the chain of the parasitic gap, the “composed chain”

$(\mathcal{C}, \mathcal{C}') = (\alpha_1, \dots, \alpha_n, \beta_1, \dots, \beta_m)$

is the chain associated with the parasitic gap construction and yields its interpretation).

다음은 Chomsky(1986:63)의 연쇄조건이다.

- (56) 논항연쇄조건 (A-Chain Condition)

최대 논항연쇄 $(\alpha_1, \dots, \alpha_n)$ 는 정확히 하나의 격을 받는 자리, 즉 α_1 과 정확히 하나의 격을 받는 자리, 즉 α_n 을 지니고 있다 (A-chain $(\alpha_1, \dots, \alpha_n)$ has exactly one Case-marked position (namely, α_1) and exactly one θ -marked position (namely, α_n)

(56)은 성분통어관계가 이루어지는 연쇄에는 모두다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공백이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해서는 안된다; 하게되면 공운용소가 아닌 진공백이 최대논항연쇄의 핵이 되어 연쇄합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성분통어관계가 이루어져서 반성분통어조건으로 안되는 구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5)의 연쇄합성에서 β_1 이 α_n 에 반드시 인접해야 한다. 그래서 Chomsky(1986: 65)는 하위인접조건을 연쇄합성에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연쇄합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다.

(57) 연쇄 합성조건 (Conditions on Chain Composition)

연쇄 합성 ($\mathcal{C}, \mathcal{C}'$) 때 \mathcal{C}' 의 핵이 반드시 \mathcal{C} 의 최종 구성요소에 영하위인접해야 한다 (forming ($\mathcal{C}, \mathcal{C}'$), the head of \mathcal{C}' must be O-subjacent to the final element of \mathca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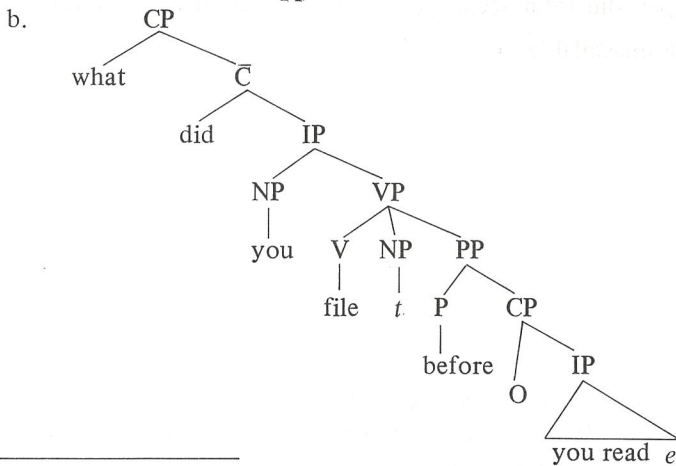
그래서 (55)에서 β_1 는 반드시 α_n 에 영하위인접해야 한다. 영하위인접은 속성은 근본적으로는 지배개념 (government)¹⁹⁾에서 성분통어조건을 제외한 것이다. (57)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합성된 연쇄 ($\mathcal{C}, \mathcal{C}'$)에서 \mathcal{C} 와 \mathcal{C}' 의 각 연결체는 어느 연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위인접조건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연쇄들은 그 속성상은 지배관계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강한 영하위인접조건하에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주어기생공백이 배제되는 사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57)이 (58)로 개정된다.

(58) 기생공백의 운용소는 진공백이 이루는 논항연쇄의 핵에 영하위인접되어야 한다. (The operator of the parasitic gap must be O-subjacent to the head of A-chain of the real gap)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들이 어떻게 적용되나를 하위인접조건을 따르는 기생공백구문부터 살펴보자.

(59) a. What did you file t [_{pp} before [O[you read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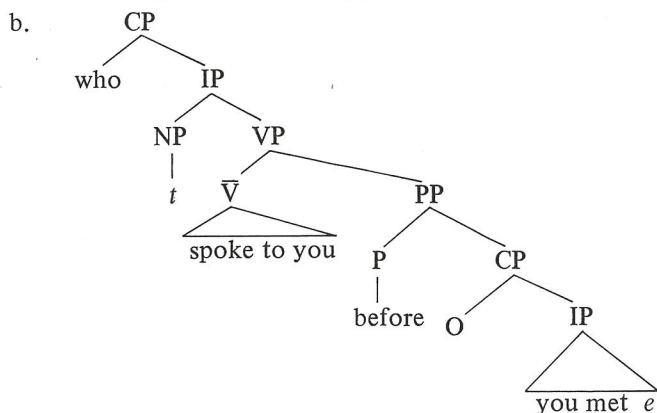


19) Y를 지배하는 구성성분을 포함하는 NP 혹은 S를 Y에 대한 지배범주라 하며, Y를 성분통어하는 동사, 명사, 형용사, 전치사 등의 어휘범주와 INFL 등을 X라 하고 X와 Y 사이에 $\bar{S}(=CP)$ 나 NP가 개재되어 있지 않을 때 X가 Y를 지배한다.

(59)는 t 가 e 를 성분통어하고 있어 정문임을 설명못한 구문이나 (59b)구조에서 보듯 연쇄는 $\mathcal{C} = (\text{what}, t)$ 와 $\mathcal{C}' = (O, e)$ 다. 그리고 O 와 t 는 PP라는 단하나의 장벽에 의해 분리되어 서로 하위인접하고 있다. 여기서도 하위인접도 가능한 것으로 우선 여기고 다음에 영하위로 다시 넘어가기로 한다.

다음은 (60)이 비문이 되는 것을 보자.

(60) a. *Who [t [$_{VP}$ spoke to you [$_{PP}$ before [O[you met e]]]]]



(60)에서는 b에서 보듯 O 와 t 는 VP와 PP라는 두 장벽²⁰⁾에 의해 2하위인접되어 있어 비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연속순환에 의하여 장벽을 피해볼 가능성도 보이나 연쇄합성은 이동이 불가능하여 비문을 피할 길이 없다.

아래와 같은 복잡한 구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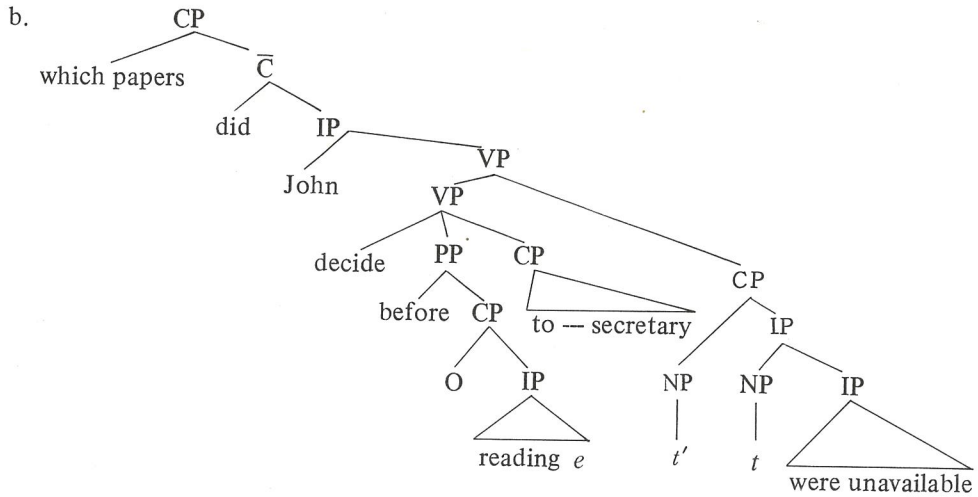
(61) a. Which papers did John decide [$_{PP}$ before O [reading e]] to tell his secretary [t' [t were unavailable]]

20) 장벽은 다음의 두 경우다 (1) X에 대한 모든 차단범주(단, IP는 제외)

(2) X에 대한 차단범주를 직접통치(immediately dominate) 하는 최대투사범주

차단범주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대투사범주다. (1) X를 통치(dominate)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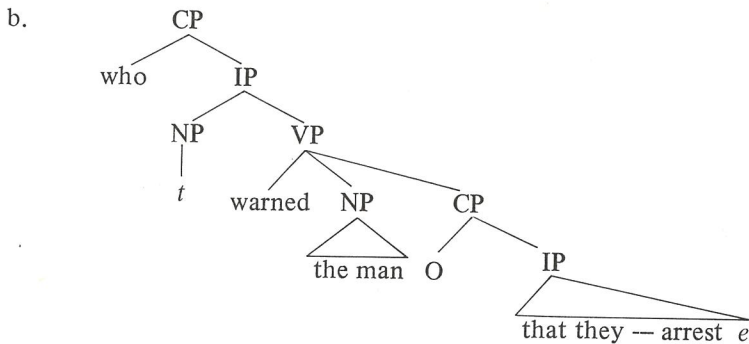
(2) 어휘범주에 의해 의미역을 받지 않는다.



두 연쇄는 $\mathcal{C} = (\text{which paper}, t', t)$ 와 $\mathcal{C}' = (O, e)$ 가 되고 장벽은 VP 밑의 PP만이 단 하나 있어 O는 t에 하위인접하고 있어 경문이 된다.

그런데 위에서 논한 하위인접조건 즉 \mathcal{C}' 의 운용소가 \mathcal{C} 의 마지막 요소(= t)에 하위 인접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는 구문은 주어를 진공백으로 취하는 구문들이다.

(62) a. * Who $t_{[VP]}$ warned the man [CP that they were about to arrest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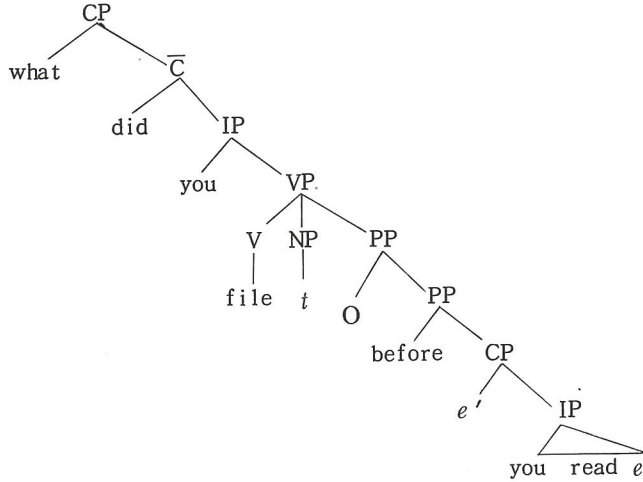


(62b)에서 보듯 장벽은 VP 단 하나인 데도 즉 하위인접조건을 따르는 데도 문장은 비문이다. 그래보니 (60)과 같이 기생공백을 성분통어하는 주어가 기생공백을 인허하지 못한다는 점과 여타의 문제도 살펴본 바 하위인접조건 보다 좀더 강력한 점이 있다. 이런 구문들은 ECP의 지배관계를 너무 심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연쇄합성이 되어도 격상충이 일어나는 구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영하 위인접조건의 개념을 도입하여 (57)의 연쇄합성조건이 나온다. 이 조건이 (62)같이 하위인접해도 비문이란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듯 해보이는 것이 앞에서 논한 (59)이다. 이렇게 하위인접조건으로도 완전하게 경문이 되는 구문들이 영하위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나를 보자. (59)의 구조를 영하위

조건에 맞도록 고친 것이 아래의 (59c)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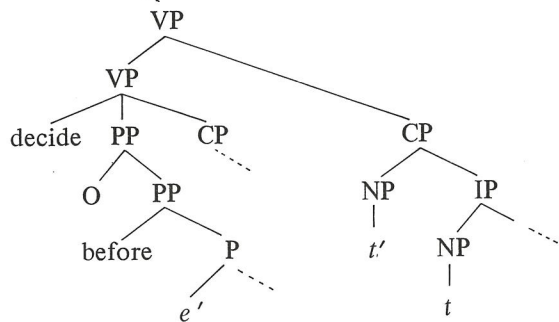
(59) C.



(59c)는 (59b)의 구조중에서 PP부분에 Chomsky식 부가가 일어나서 e'자리에 있던 O가 이동된 것이다. 이런 이동을 막을 어떤 제약도 이 구조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t와 O 사이에는 장벽이 제거되고 영하위인접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부가어조건(Adjunct Condition)²¹⁾도 피하게 된다. 역시 (60b)에도 같은 이동이 일어나도 이곳에는 t와 O 사이에 여전히 VP라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비문이 된다.

또, (61b)도 (61c)로 고치면,

(61)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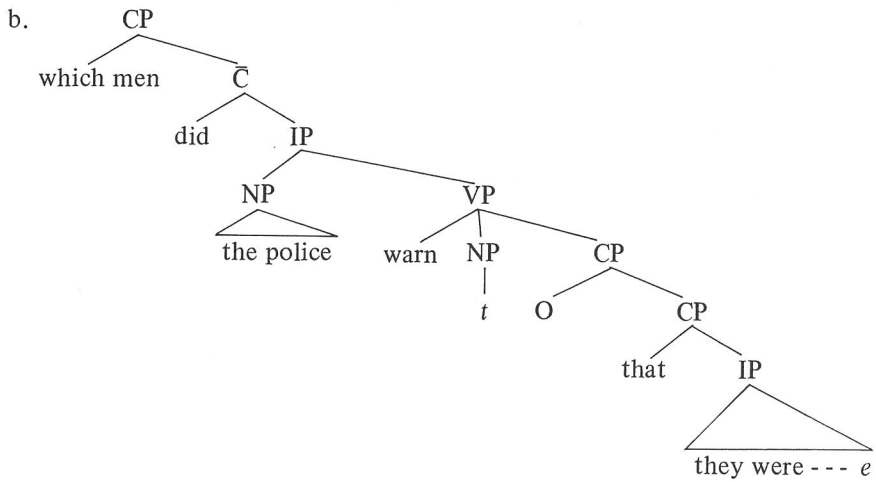


위에서 VP는 t'를 통치하지 못해서 장벽이 e'에서 O의 무위이동으로 PP라는 장벽을 넘어 O와 t'(=t)는 영하위인접하게 되고 여전히 정문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래 문장을 보자.

(63) a. Which men did the police warn t_[CP that they were about to arrest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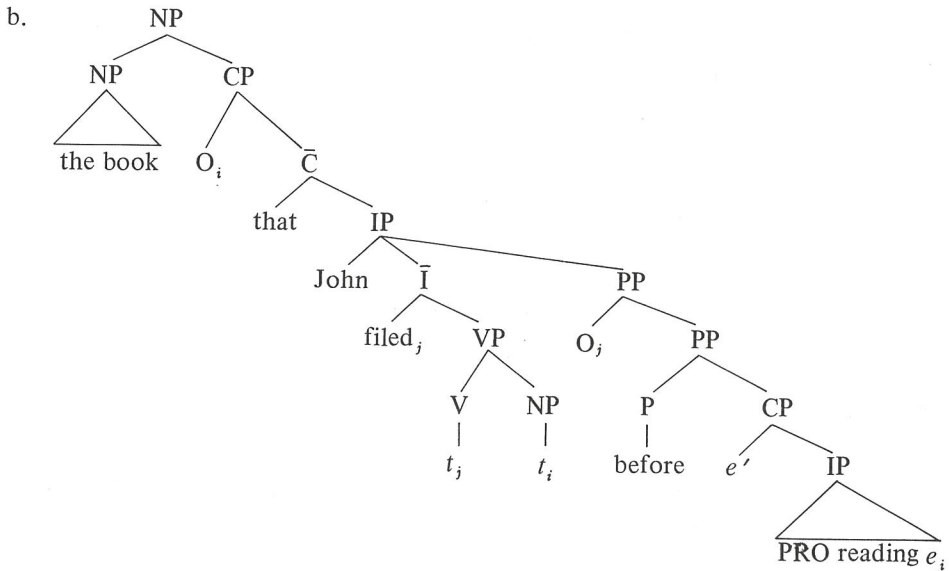
21) 부사절이나 부사구안의 어떤 요소도 그 밖으로 빼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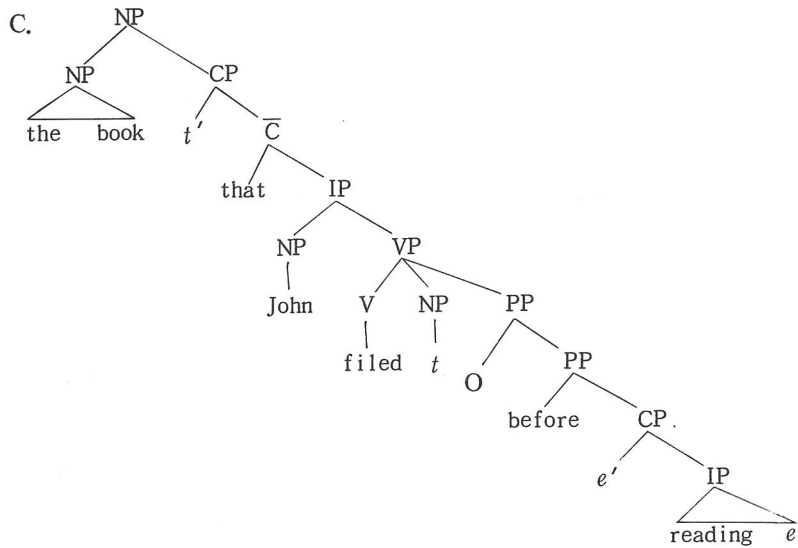


(63)은 반성분통어조건으로는 해결 못한 구문이다. (63b)에서 *O*가 없다면 *t*가 *e*를 성분통어하고 있다. 이유는 CP가 *warn*의 지배되는 보문으로 *warn*의 동위교점이 되므로써 성분통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문이 되어야 하는 데도 정문이다. 이것을 $e' = (O, e)$ 의 체인이 이루어지도록 운용소를 이동시켜 *O*가 *t*에 영하위인접되도록 구조를 변경시켜 정문이 됨을 설명가능토록한 것이다.

다음은 정태구(1986 : 14)에서 영하위인접조건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반성분통어 조건으로 해결 가능한 구문이라 한 것이다.

(64) a. The book that John filed *t* before reading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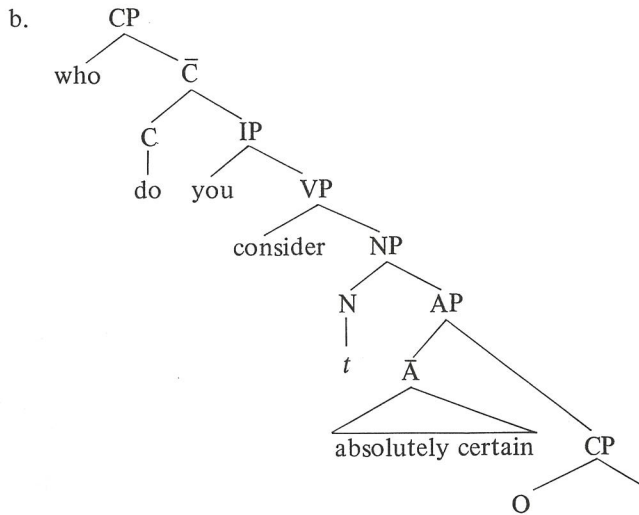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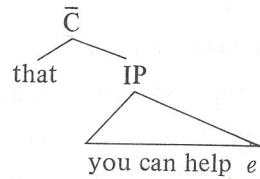


(64b)는 정의 분석도형이고 (64c)는 필자의 수형이다. 정의 논점은 VP 라는 장벽이 있어 O_j 가 t_j 에 영하위인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 필자의 주장은 PP의 부착점이 IP 교점이라기 보다는 여기서는 Contreras의 문장(2)의 분석처럼 (64c) 같이 분석한다면 $e = (the\ book\ t', t)$ 와 $e' = (O, e', e)$ 로 두 체인이 형성되고 t 와 O 가 연쇄합성을 이루고 영하위인접이 되어 조건에 맞아 정문임을 밝혀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 영하위인접조건이 반성분통어조건을 포함할 수 있겠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내포된 소절의 주어가 기생공백을 인허하지 못함을 살펴보겠다.

(65) a. *Who do you consider [t [$_{AP}$ absolutely certain [$_{CP}$ that we can help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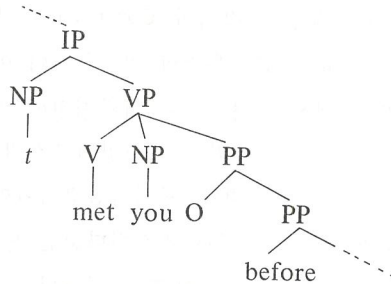
(65)에서 *t*가 *e*를 성분통어하기 때문에 비문이라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영하위인접조건으로 소절의 주어 *t*는 *O*와 AP에 의해 장벽이 막혀 영하위인접할 수 없어 비문이 된다고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O*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AP가 *consider*의 논항이므로 *O*가 VP와는 1- 하위인접하므로 이동하여 VP에 갔다가 다시 CP의 자리로 영하위인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O*의 이동은 CP를 넘어서는 불가능하다고 조건을 붙여 최종조건 (58)로 *O*와 *t*가 반드시 하위인접되도록 못박았다.

다음은 구조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아래의 구문은 이미 앞에서 *t*가 *e*를 성분통어해서 비문임이 설명된 (39)이다.

(39) *Who [*t* met you [*before* you recognized *e*]]

이 상태로 영하위인접조건으로는 비문임을 밝혀낼 수 없다. 이미 영하위인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P를 IP에 부착시키지 말고 대신 VP에 부착시킨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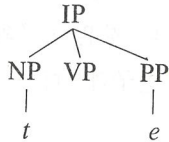
(39)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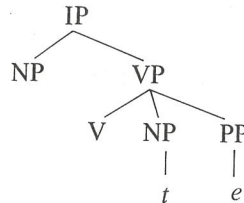
가 되어 VP가 장벽이 되어 영하위인접조건도 비문이 됨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위와 같이 PP가 부착하는 교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고 문장의 수용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문제가 기생공백구문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해결이 안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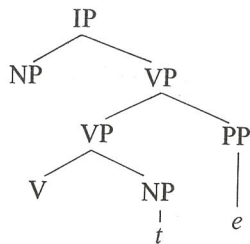
(66) a.



b.



c.



위의 (66)에서 a는 반성분통어관계를 따지는 데 주로 이용되는 구조이고, (66b)는 성분통어는 되면서도 영하위인접조건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해서 성분통어를 영하위인접 조건에서 흡수 가능한 구조라 보이고, (66c)는 성분통어도 막으면서 역시 영하위인접조건도 적용되도록 구조를 약간 변경시킨 것이다. 그러나 (66c)를 수용할만한 논증이 아직은 희박한 것처럼 느껴진다. 더욱 주시해야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미 (57)과 같은 반성분통어 조건은 피하는 장치가 나왔으므로 (66b)의 구조도 문제가 안되리라 생각된다.

VI. 결 론

지금까지 기생공백의 속성과 제약조건들을 개관해 본 바 기생공백의 속성은 기저에서 생성된 공백주로서 S구조에서 변항의 위상을 지녔고 그것은 목적어 자리의 Wh 흔적인 진공백이 성분통어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기생공백을 인허한다고 가정되어 왔다.

이런 반성분통어조건으로 기생공백을 분석하나 구조상의 중의성문제도 나타나고 또 이 조건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반례들도 나타난다.

그러자 Chomsky (1986)는 자신의 전의 견해를 수정하여 Contreras (1984)의 공운용소이동을 받아드려 운용소와 진공백이 이루는 연쇄와 공운용소와 기생공백이 이루는 또 하나의 연쇄가 존재하여 그 두 연쇄가 서로 합성되어 해석이 나온다는 연쇄합성에 양함원리도 피하게 되고 반성분통어조건에서 나타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위인접조건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생공백의 운용소는 진공백이 이루는 논항연쇄의 핵에 영하위인접되어야 한다”는 영하위인접조건을 주장하고 많은 기생공백의 문제들을 해결하나 완전하다고는 생각되지 못한다. 여기서도 역시 문장분석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반례도 나타난다.

Engdahl 이 기생공백을 논하면서 문법의 중심이론과 기생공백의 관련성 여부에 관심을 두었으나 새로운 원리가 있는 것 보다는 기존 보편문법의 원리들의 조합적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기생공백이 이런 원리들에 대한 보강구문으로서의 그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는 생각된다. 아울러 구문분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pro 탈락어에서 기생공백이 불가한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겠다.

참 고 문 헌

- 소화섭, 1987, “의존공범주구문에 관하여”, 중앙대 인문학연구 제 14 집, pp. 115-146.
- 양동휘, 1987, *Barriers* 강의노트, 서울대.
- 장석진 외, 1987, *영문법개론(III)*, 신아사.
- 정태구, 1987, *Ms. Parasitic Gaps*, 고려대.
- Chomsky, N. 1981a, *LGB*, Foris Dordrecht
- . 1982a,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GB*, MIT
- . 1986b, *Barriers*, MIT
- Contreras, H. 1984, “A note on Parasitic Gaps” *LI* 15, 355-380.
- Engdahl, E. 1983, “Parasitic Gaps” *LP* 6.5-34
- Koopman, H. and D. Sportiche, 1982, “Variables and the Bijection Principle” *The Linguistic Review* 2, 139-160
- Riemsdijk, H., and Williams, E. 1986,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ammar*, MIT
- Taraldsen, 1979,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a class of “marked” extractions In A Belletti, L. Brandi, and L. Rizzi, eds (1981) Chomsky (1982a)에서 재인용

Abstract

There are two ways of parsing the parasitic gap construction in English. One is the analysis by Taraldsen (1979), Engdahl (1981–83), and Chomsky (1982a), the other is that of Chomsky (1986).

The structure of the former is as follows:

(1) ... α ... t ... e ... (order irrelevant)

where α = operator, t = real gap, and e = parasitic gap. The condition of licensing parasitic gap is that e is not c-commanded by t which must be existed. Chomsky (1982a) argues that e is a base-generated empty category at D-structure and t is an EC left by the movement of Wh-phrase at S-structure, therefore both t and e are variables bound by an operator, α . So he modifies the licensing condition by introducing the functional determination of EC that t , a locally A-bound EC, licenses an A-free e that is not c-commanded by the t

Because of some counter-examples against the above Anti-c-command condition, however, Chomsky (1986) changes his viewpoint to the following structure (originally by contreras (1984)).

(2) [_{CP} -- α - t] [_{PP} O -- e --]

here O is an empty operator generated by vacuous movement hypothesis so that the two chains (α, t), (O, e) may be formed respectively. The licensing condition is that O must be O-subjacent to t .

The latter O-subjacency condition solves a lot of problems of the parasitic gaps, even so, it is not complete enough for all.

Engdahl inexplicitly wishes the parasitic gap to be a central issue in the linguistic theory, though it does not reveals the relationship to the central grammatical theory whereas, Chomsky proves that the phenomena of parasitic gap structure could be explained by the modular explanations in the independent principles of Universal Grammar. In spite of the above fact, I think the parasitic gap structure can occupy its proving ground as a reinforcing construction for the principles of UG as yet.

개교 91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특집

— 韓國文學史의 位相 —

지난 1988년 10월 14일(금)에 개최한 개교91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한국문학사의 위상」의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본호의 특별부록으로 아래와 같이 수록한다.

- 분단시대의 문학사 서술(黃 湔 江)
- 한국문학과 일본문학 (大谷森繁)
- 한국문학과 중국문학 (陳 祝 三)
- 綜 合 討 論 정리·편 집 자

